

7/21(목) 전도서 7-12장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

유대공동체는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.

누가 패권을 쥐느냐에 따라 제국의 이름만 바뀔 뿐

여전히 식민지 신세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.

공동체는 지배국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.

페르시아의 경제정책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들이 발생하고,

헬라의 영향으로 인간의 능력을 무한 신뢰하는 사조가 유행했습니다.

신분 상승을 위한 <헬라 스펙 쌓기> 열풍도 불었습니다.

전도자는 세상 지혜와 처세들이 <헛되다>고 말합니다.

헛된 꿈을 꾸며, 헛수고 하는 이들에게 <삶의 본질>을 일깨웁니다.

잘사는 법(7장), 일상과 지혜(자)의 가치(8-9장), 소유와 존재(11장),

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세상의 실체들에 관하여(10장).

칭송받고 유행하던 학문과 기술, 정책, 정치, 인재들,

그 모든 것의 결국은 헛되고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(1-2장).

현실세계와 인간의 노력들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

인간과 그들이 고안한 것이 과연 선하고 완벽하고 영원한가?

인간/세상의 <유한함>을 말하려는 것입니다(1:12-18, 5:2, 8:7).

“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(12:1)”

청년의 때는 방향을 잡고 기초를 세우는 시기입니다.

수고와 열심보다 <창조의 순리>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.

변치 않는 든든한 기초 위에 건실한 인생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.

“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

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

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(12:13-14)”

내 삶의 기초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?

① 유행/권력/물질/인맥 등 변하고 잊힐 것들 위에 서 있습니까?

② 태초부터 한결같고 불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위에 서 있습니까?